

## 2015년 6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서

###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9,767,807	전월이월금	2,620,156
지 로	3,108,200	우리은행	3,338,211
국민은행	4,528,000	하나은행	1,291,000
조흥은행	150,000	신한은행	1,330,000
외환은행	487,500	제일은행	245,000
농 협	1,500,000	기업은행	270,000
우 체 국	75,000	지정기탁	590,000
		교구보조	10,234,740

###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1명의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3,114,27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2,200,000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334,000	교통비, 봉사자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65,180	약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2,674,890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1,921,71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600,000	심리치료, 문화체험등보육지원, 중병치료지원금	
교육비	-	문구류, 책등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행사비	-	행사, 문화체험비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종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5,543,87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9,603,920	잔액(이월금)	163,887

### <쉼터 이용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8	0	3	28
베다니아의 집	5	0	1	4
벗들의 집	6	4	4	6
사랑의 집	11	0	0	11
마고네공부방	8	0	0	8



### - 소 통 -

예전에 서울대교구에서 시노드를 개최하면서 교구 전체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대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난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안은 여러 가지였는데, 해결을 위한 결론은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본당에 속한 문제이든, 교구 조직에 대한 문제이든 시노드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린 문제의 원인은 모두 하나같이 "사제들의 관심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안 역시 "사제 양성과정에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모아졌습니다. '신부님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잘 알고 대해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의견은 모두 "사제들의 관심 부족"이라는 말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제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니 신학교에서 소양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건의에 올라온 모든 과정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려면 현재 10여년의 양성과정이 아니라 20년으로도 부족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직자 중심인지 생각해 볼 때, 또 아무도 성직자에게 대놓고 충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시노드에서 다루어졌던 여러 이야기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제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근본적으로 사제 양성과정이 변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얼토당토한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사제로 살아가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나?'하고 반문해 봅니다. 아 니 그보다 앞서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힘쓰고 있나?'하고 되돌아보 니다. 신학교에서 내가 배운 것들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과연 무엇에 투신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반대로 배우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아 잊고 지내는 것들은 없는지도 떠올려봅니다. 저에게도 분명 '관심이 부족하다',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가 무언가 배우고 익히길 바라며 충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 역시 모든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분명 저의 경험과 이해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분명 소통을 갈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이던 시절, 시노드에 올라온 내용들과 논의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사제로 살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던져볼 때, 과연 나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갈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제가 되면서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아니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절대로 갖고 싶어 하지 않기에'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잔소리와 충고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런 자극이나 충고 없이 전적으로 스스로 깨어있으면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충고에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차갑게 표정이 바뀌는 내 모습을 보면서 충언을 듣지 못하는 것이 나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변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잘 소통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내가 관심을 더 기울이고 더 잘 챙겨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꼭 알아내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공지사항

###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8월 후원미사는 17일, 9월 후원미사는 21일, 10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5년 6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5명입니다.

그 중 캄보디아 환자(여, 28세, 미혼, 합법)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5년 5월에 입국하여 천안지역 농장에서 일한 지 한 달 만

에 몸이 붓고, 구토와 몸살이 심한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

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국한 지 3개월

이 지나지 않고 고용해지 된 상태로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합

니다. 본국에서 부모님이 땅을 팔고 빚(300만 원)을 내어 한국으로 보내주셨기에 몸이 아파도 구직하

기 위해 대전 고용안정센터 방문했다가 수원 엠마우스(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실무자를 만났습

니다. 병원비도 없어 당장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을 알고 엠마우스가 서울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베다니아의 집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1차 도티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 보라는 의사 소견으로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비

지원 받을 방법이 없어 인천 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정밀검진 결과 화사구체 기저막

질환과 급성 신장 손상으로 수술비가 7천만 원에 생존율도 30%정도밖에 안 되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

1주일 이상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몸이 쇠약해져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귀국할 수 없는

데다 생존율도 낮아 한국에서 사망할 위험이 커집니다. 귀국하여 치료해도 완치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며 치료 받기로 했습니다. 엠마우스에서 빚(300만 원)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본국에서

투석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 병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위해

평화신문에서 7월 3일 인터뷰했습니다. 모금액은 다음 달 캄보디아에서 사목 중이신 살레시오회 소속

신부님을 통해 나누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귀국하여 가족과 지내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땃발가꾸기



풍선아트시간